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영화영상산업 펜타곤 벨트' 구현

우범기 시장 '전주시 2034
영화영상산업 비전' 발표

전주권 5개 거점별로
특화단지 조성 연결

10년간 총 5750억 투입
미래영화영상 기술 혁신
영상산업 생태계 마련 등
4대 전략·10대 과제 구성

전주시가 그간 키워어 축적해온 영상문화산업 역량 위에 창의성과 첨단 기술을 입히고, 관련 기업 유치와 장 기체류 로케이션을 확대하는 등 영화 영상산업의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관련기사 16면>

특히 시는 기존 영화영상 촬영도시에서 기획·제작·투자까지 이뤄지는 영상산업도시로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전주권 5개 거점별로 특화단지를 조성해 연결하는 '영화영상산업 펜타곤 벨트'를 구현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30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주시 2034 영화영상산업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K-영상 콘텐츠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으며, 그 파급력은 산업의 경계를 넘어 음식, 음악, 문화까지 제2의 한류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면서 "전주는 방대한 문화콘텐츠의 원형을 지닌 도시로서 한국영화사 100년 역사를 간직한 영화 도시의 저력과 세계적인 전주 국제영화제를 만들어온 예술문화의 힘, 촉촉한 영화영상 인프라 등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글로벌 영화영상산업의 수도'로 우뚝 서겠다"고 밝혔다.

오는 2034년까지 10년간 총 5750억 원이 투입되는 전주시 2034 영화영상산업 비전은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수도, 전주'를 비전으로 △글로벌 영화 촬영 거점 조성 △미래영화영상 기술 혁신 △세계적 영화관광도시 조성 △강한 영상산업 생태계 마련 등 4대 전략, 10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영화 제작 방식을 뛰어넘어 첨단기술과 융복합 콘텐츠



우범기 전주시장이 30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전주시 영화영상산업 비전발표 브리핑'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츠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영상 생태계를 구축,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이 가운데 전주의 영화영상산업 거점별 특화 구역을 연결하는 '영화영상산업 펜타곤 벨트'의 경우 △탄소중립 영화영상 촬영단지(상림동 일원) △전주형 영화·관광산업 융복합 문화단지(고사동 영화의거리 일원) △미래 영상기술 융복합 거점(전주역 일원) △쿠뮤펄 아시아 제2스튜디오(전주 북부권) △방송·미디어 영상콘텐츠 단지(만성동 일원)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는 펜타곤 벨트를 통해 영화 촬영 및 영상 제작을 위한 총괄적인 지원을 비롯해, 미래형 영화영상 기술을 선도하고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콘텐츠를 창출해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러한 비전이 실현되면 영화 영상산업 일자리 1,000개 등 직·간접 일자리 7,000개 창출과 200개 기업 유치, 연간 지역매출 2,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전주국제영화제도 규모를 키워 2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등 전주만의 영화영상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수도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최신 첨단기술과 함께 급변하는 제작 환경에 발맞춰 미래 영화영상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한편, 오는 2026년 완공되는 전주 독립영화의 집을 중심으로 영화제작부터 상영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 전주영화영상산업의 종자돈이 될 100억 원 규모의 영상진흥기금 조성도 영화제작 투자를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문화펀드 투자유치를 통해 영화영상 산업 인력과 기업을 키우는 등 국내 최고의 촬영도시로 만들기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에서 탄생할 제2의 오징어게임이나 가생충이 미래 100년 후까지도 전주의 경제가 되고,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세계 시장과 손을 맞잡고 힘차게 나아가겠다"면서 "세계를 매혹 시킬 전주의 새로운 이야기에 따뜻한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김욱기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주 공연계 이끌 공연예술단체 작품 '한눈에 내달 '2024 전주 공연예술페스타'

팔복예술공장·전주한벽문화관 등서 개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전주 공연계를 이끌어 갈 공연 예술단체들이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는 '2024 전주 공연예술페스타'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페스타는 전주문화재단 공연예술지원 사업의 선정작을 한자리에 모아 선보이기 위해 기획됐다. 창작 초연 부문에 선정된 1개 단체와 우수 레퍼토리 부문에 선정된 4개 단체의 공연이 팔복예술공장과 전주한벽문화관에서 펼쳐진다.

먼저, 창작 초연 선정작 '임은주 현대무용단 Dance Project of Lin'의 '자라나라'는 예술가이자 엄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창작자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질문에서 출발한 창작무용 작품이다. 11월 3일 오후 4시, 팔복예술공장의 이팝나무홀을 중심으로 팔복예술공장의 아의 공간들을 활용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어 우수레퍼토리 부문 선정작 '소용돌이'가 팔복예술공장에서 관객을 만난다. 공연은 11월 10일 오후 4시,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홀에서 열린다. 다음으로 '공연예술창작소 극단 데미샘'의 '새로운 우주의 가로보행' 공연은 11월 20일 오후 7시 30분 전주한벽문화관에서 관객과 만난다.

지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 단체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오케스트라 PAN'은 '최명훈의 밤'을 선보인다. 11월 28일 오후 7시 30분, 전주한벽문화관에서 공연이 펼쳐진다. 끝으로 페스타의 마지막을 장식할 작품은 '서로 아트컴퍼니'의 <KNOCK>이라는 작품이다. 공연은 전 좌석 2만 원이다. /장은성기자

반도체 핵심 소재 제조시설 추가 투자

전북자치도·새만금청·백광산업, 새만금 산단에 7500억 추가 투자협약 체결
작년 12월 투자금액 3000억원 포함 총 1조5000억 투자 확정... 내년 1분기 착공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군산시는 30일 백광산업과 '반도체 핵심 소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협약은 백광산업이 지난해 12월에 체결한 이차전지 전해질용 핵심원료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협약에 이어, 당시 투자금액(약 3천억 원)의 2.5배를 추가 투입하는 두 번째 공장 설립을 위한 것이다.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강인준 군산시장, 장영수 백광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 후 강인준 군산시장은 "군산향토기업인 백광산업의 이차전지 및 반도체 공정 소재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축하드린다"라면서, "이번 투자를 발판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군산시는 30일 백광산업과 '반도체 핵심 소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발전과 더불어 원재료 국산화,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백광산업은 주요 생산품인 가성소다(NaOH), 염소(Cl2)를 70년간 안전하게 생산해 온 화학소재 기업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소재로 사용되는 고순도 염소 및 염화수소를 생산해 삼성전자 등에 공급하고 있다.

백광산업은 1차 투자금액 3,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5,000억원을 새만금에 투자하게 됐다. 앞으로 1천여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2025년 1분기 새만금 산단 6공구에 새만금 제2공장을 착공하며, 석가 가스, 실리콘 전구체 등 고성능 반도체·디스플레이에 필요한 핵심 소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현장에서 배우고, 현장에서 해법을 찾는 현장중심의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고창군의회